

**FOR IMMEDIATE RELEASE**

**Contact:**

윤성욱,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 
[information@orchestraprivateequity.com](mailto:information@orchestraprivateequity.com)

**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, 서울비전 주요 사업계획 착수**

***사명변경을 통해 지주사 체제 전환 완료***

**2019 년 1 월 17 일**

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 (이하 “오케스트라”)가 설립한 “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 2 호 사모투자합자회사” (이하 “OPE II”)는 (주)서울비전 (이하 “서울비전”)에 대해 사업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 및 (주)비전홀딩스 코퍼레이션 (이하 “비전홀딩스”)로의 사명변경을 2019 년 1 월 17 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.

서울비전은 국내 내수시장을 넘어 중국과 아시아시장 진출 등 해외시장 진출전략과 기존 주력사업인 TV 광고영상 후반작업 부문에 이어 컴퓨터그래픽(CG) 이미지 서비스와 가상현실(VR) 이미지 서비스, 그리고 TV/온라인광고 프로덕션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사명을 “비전홀딩스”로 변경하였습니다.

사명변경을 통해 비전홀딩스는 한국과 중국에 5 개의 완전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. 비전커머셜 (서울비전에서 물적 분할하여 설립), 비전 CG (서울비전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), 플레이어블 (서울비전에서 물적 분할하여 설립), 비전 VR (2018 년 7 월 31 일 인수한 (주)투토키), 비전상해(구 서울비전의 상해지사)가 있으며 이중 국내 소재 자회사들은 서울시 강남구,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.

오케스트라의 김재욱 파트너는 “사업계획을 통해 비전은 주요 사업영역인 post-production 을 강화하고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것”이라고 말했습니다.

###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

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한국 및 일본 현지 중견기업 인수 후,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“Global Champion”으로 성장시키는 동아시아 중심의 미드캡 바이아웃 펀드입니다. 오케스트라는 한국과 일본에 기반을 두고 현지 중견기업 인수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주력하는 cross-border 운용사 (GP) 입니다. 피인수기업 고유의 기업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(LP)의 가치창출에 필요한 역량과 인내, 원칙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피인수기업의 성장을 지향합니다. 피인수기업 경영진과 협업하여 회사의 유기적 성장 및 시장 확장,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[www.orchestraprivateequity.com](http://www.orchestraprivateequity.com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 비전홀딩스 코퍼레이션 개요

비전홀딩스는 광고대행사, 엔터테인먼트사, 영화스튜디오,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후반작업 및 디지털 이미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회사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, 서울과 상해에 각각 100명, 5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[www.visionholdingscorp.com](http://www.visionholdingscorp.com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이상